



함께 가야 할 동반자-학부모, “함께 가요.”



1. 부담스러운 우리들 사이

부담스러운 학부모 : 대부분의 교사들은 경력을 막론하고 학부모를 부담스러워 함

부담스러운 선생님 : 학부모에게도 교사는 부담스러운 존재임

2. ‘상식적’인 학부모

‘이상한 학부모’는 소수

상식적인 대부분의 학부모 :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라는 생각만 해도 학부모를 대하는 교사의 마음은 많이 편안해짐 나를 아이의 선생님이로 대하고 있으니, ‘나도 아이의 교사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학부모를 배려하면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김

3. 학교에서 생기는 갈등은 당연한 것

1)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학교

학교는 한창 자라고 있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과 그들을 가르치는 다양한 연령과 경력을 가진 교사, 각기 다른 사회적 경제적 배경과 생각을 가진 학부모가 함께 하는 곳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에서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임

학교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은 우리 교사들을 힘들게 하지만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갈등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그것을 받아 넘길 수 있을 것임**

2) 달라진 학교 문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우리들

교사를 배려하지 않고 부적절한 표현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학부모와 아이들은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교사에게 말할 권리가 있음**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하는 학교 문화 :

교사와 학부모와 아이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교육에 대해 이야기 하는 열린 문화

4. 교사와 학부모, 함께 가는 동반자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협력해야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음

교사와 학부모의 이상적 관계

- ① 동반자(파트너십) 관계
- ② 자녀의 성장·성숙을 위한 조력관계
- ③ 상호존중과 격려의 관계
- ④ 감사와 사랑의 관계
- ⑤ 미래세대를 함께 가꾸는 관계

5. 함께 가기 위한 노력

1) 아이의 성장을 믿고 기다리고 함께 지켜보기

인간은 자신을 좀 더 유능한 존재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자아실현 경향성’을 갖고 있음(칼 로저스)

아이의 문제 행동에는 훈육을 해야 하지만, 아이의 현재 모습을 가지고 선부르게 판단하기 보다는 미래를 기대하고 존중하며 기다려주는 것이 아이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해 더 큰 도움이 됨

2) 교사에게 감사, 학부모에게 존중을

교사는 **‘소중한 내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감사한 선생님’**이며, 학부모는 **‘부족한 나를 교사로 믿고 귀한 아이를 맡겨준 고마운 사람’**임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학부모는 교사를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고 교사는 학부모를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게 될 것임

마음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행동을 바꿈